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3.(금) 15: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5.(일) 09:00
(지 면)2026. 11. 16.(월) 조간

의과대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 우수사례 8편 선정

- 2026년 의과대학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8편) 발표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의과대학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 8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정과제 84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에 따라 추진 중인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그간 의과대학이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교육모델이 다른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학교육 혁신을 지원

공모전에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과 학생이 총 56건의 사례를 제출하였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 8작을 선정한 후, '모두의 광장 누리집(www.modu.go.kr)'을 통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생의 진로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의료취약지 현장실습 등 의과대학의 다양한 혁신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의 강의실과 대학병원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의 주도적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한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대상을 받은 유석진 학생(아주대학교)은 의과대학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교육의 수혜자에서 교육혁신의 주체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석진 학생은 의학과 다른 학문을 연계한 수업·연구 활동을 통해 융합연구 역량을 키웠으며, 동료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문 분석 학습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장을 이끌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다시 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임선주 교수(부산대학교) 등 의과대학 교직원은 기존 의예과와 의학과로 구분된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필수의료, 지역사회 공공의료, 의사과학자 등의 진로 경로(트랙)을 선택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고, 미래 의료 환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 우수상을 받은 학생팀(부산대학교) ‘코드블루(Code Blue)’는 의대생과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추론 학습 플랫폼인 '코드미오'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이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검사-진단-처방’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 의견(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주도해 의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와 교직원은 서해 최북단 의료취약지인 백령도에서 운영한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사례를 소개하였다. 인하대학교 의대생들은 백령병원과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 현장을 경험하는 한편,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예방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다.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실습을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우수한 교육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를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의학교육계와 의과대학 학생,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에도 해당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번 공모점을 통해 의과대학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미래의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우수사례 수상작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	책임자	과장	배효진 (044-203-6981)
		담당자	서기관	길민서 (044-203-6984)
			사무관	채시은 (044-203-6409)
			주무관	김성은 (044-203-6983)

붙임 **우수사례 수상작 주요 내용**

구분	성명 (소속)	주요내용
대상	유석진 (아주대 학생)	**학교가 키운 학생이, 다시 학교의 교육을 키우다: 의대 교육혁신으로 성장한 한 의사과학자의 선순환 사례** ▸융합의과학 수업, 강의페어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실 인턴 경험을 통해 의학·과학 융합연구 역량 함양 ▸동료 학생들과 AI 기반 논문 분석 학습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며, 교육의 수혜자에서 교육혁신의 주체로 성장
우수상	Code Blue (부산대 학생)	**학생주도형 융합 AI 교육도구 개발 과제 참여: 의학, 정보컴퓨터공학 융합을 통한 AI기반 CPX 시뮬레이션 학습 플랫폼 기획 및 개발** ▸의대생과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진·검사·진단·처방 등 실제 진료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AI 기반 임상추론 학습 플랫폼 개발 ▸의대생은 임상 시나리오 설계, 공대생은 기술 구현을 담당하며 전공 간 협업을 통한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
	부산대학교 (부산대 교직원 임선주 등)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인재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통합 6년제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 구축** ▸학생의 진로에 따라 필수의료·공공의료·의사과학자 등 5개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통합 6년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AI 융합교육과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부산·경남 5개 의과대학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 임상실습 확대
장려상	송희정 (충남대 교직원)	**카데바에서 초음파까지: Living Anatomy 기반 기초-임상 통합교육** ▸해부학 실습 직후 초음파를 통해 실제 인체의 혈관 구조를 관찰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 강화 ▸카데바에서 확인한 구조를 살아있는 인체에서 관찰하고, 초음파를 통해 기초-영상-임상의학을 연결하는 통합형 교육 실시
	이훈재 (인하대 교직원)	**서해 최북단 백령도 보건의료기관 임상실습** ▸서해 최북단 의료취약지인 백령도에서 임상실습을 운영하며, 대학병원 중심의 실습을 지역사회 의료현장으로 확대 ▸백령병원 임상실습 외래진료, 대청도와 소청도 이동진료, 현지 주민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관리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상담 활용을 위하여 교육자료 제작, 실태조사, 맞춤형 상담 실시

구분	성명 (소속)	주요내용
	정지호 (원광대 학생)	**지역사회 전체를 실습장으로 확장한 공공의료 연계 임상실습 경험** ▸ 군산의료원과 김제 지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경로당 등을 연계한 실습을 통해 응급진료, 재택의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 경험 ▸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와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며, 예방 가능한 질환을 더 일찍 발견하고 관리하는 관점의 중요성 인식
	김다원 (조선대 학생)	**지역 환자와 함께하는 1년(LIC 장기추적임상실습)** ▸ 진료과별 단기 순환실습에서 벗어나 학생 1명이 환자 1명을 장기간 추적하며 외래·입원·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임상실습 참여 ▸ 전남 화순에 거주하는 췌장암 환자와 1년간 소통하고 지원하면서, 환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까지 이해하는 환자 중심 의료의 중요성 체득
	이원경 (영남대 학생)	**영천 영대병원 실습을 통해 본 지역 필수의료의 중요성** ▸ 영천 영대병원에서의 실습을 통해 2차 병원에서 많이 보는 질환은 영천 영대병원과 같은 지역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함을 직접 경험 ▸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 중인 영천 영대병원의 상황 등 대구와 달리 열악한 경북(영천)지역 의료를 확인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